

금향로가 차기까지

MARCH 2025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SILK WAVE MISSION

2025 CP 가족 수양회 특별호



SWM Web



SWM 후원



유튜브채널



카카오톡채널



SWM 연합기도제목

1.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때의 소식들을 들으며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쉬지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소서!
2. 무슬림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슬람의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 폭력의 영의 정체가 낱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슬람권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튀르키예에서 지난 4년 동안 추방된 선교사들(159명)과 가족들(약 350명)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운데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소서!
4. 연합기도운동(UPM/United Prayer Movement)을 통하여 튀르키예와 중동 및 이슬람권에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개척운동(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개척자들과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현지에 계속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적교회운동(MCM/Missional Church Movement)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소서!
5. 2018년부터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개척운동(CPM)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계획과 방법대로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잘 감당하게 하소서!
6. 9월(예정)부터 시작되는 HWM 4기 훈련과 사역을 위해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BTS 제 2기 학생들과 교수진 및 이에 필요한 재정이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7.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기억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속히 성취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히박국 3:2)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흠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김성간 선교사(SWM 선교회)

지난 1월말 튀르키예를 일주일의 짧은 일정으로 방문하며, 특별히 CP가족수양회 기간 동안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나 대화하며 현지 영적 상황을 직접 듣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의 영적 분위기를 몸소 느낄수 있는 은혜와 영적 분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튀르키예의 영적 각성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ITN(International Turkey Network)의 보고에 의하면 2019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 만 5년 동안 115 유닛, 가족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약 250명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튀르키예에서 추방되거나 재입국 못하는 소위 코드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말 CP 가족수양회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같은 호텔에서 그들의 컨퍼런스

를 진행했던 WEC 선교단체에서 몇 유닛들이 또 코드를 받았다는 안타까운 보고를 현지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TeK(튀르키예 개신교교회협의회)에서 보내온 업데이트를 보면 올해 2025년 2월까지 코드를 받은 외국인 사역자(선교사)들은 총 159 유닛이고, 가족까지 하면 약 3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CP가족수양회의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Revival... 저는 CP가족수양회 기간동안 이러한 상황들을 현지에서 직접 들으며,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튀르키예에 부흥을 주실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부흥”에 관하여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증명된

모든 부흥의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흥...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사실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 딱 한번, 하박국 3장 2절에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물론 부흥의 개념으로 “생명, 소생, 회복, 회개, 흥왕, 왕성” 등의 단어와 개념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고, 교회사에서 입증된 소위 모든 “부흥”은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모든 부흥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주어는 “여호와여, 주는”입니다. 즉 부흥의 주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부흥은, 그리고 교회사에서 증명되는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기도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18세기 제 1차 영적 대각성과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선봉이셨던, 우리가 잘 아는, 죠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서는 그가 직접 체험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의 중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러나 이 부흥은 아무 곳이나 임하지 않는다, 오직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만 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튀르키예와 중동 및 이슬람권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이 임하길 실로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부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주의 일을”(2x)...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타깝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에 부흥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우리의 사업과 교회 및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사역, 우리의 비전을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교회사에서 입증된 모든 부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튀르키예에 파송되고 더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지역교회들이 개척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은,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마치 1949년 이후 중국의 교회처럼) 우리는 원치 않지만, 튀르키예의 주님의 교회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과 기름부으심이 현지 교회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는 느낌을 이번에도 한번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부흥, 즉 튀르키예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마지막 세번째로, 모든 부흥은 죄에서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에서 회개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회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회개... 부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전파하신 첫 말씀이고,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입증된 모든 부흥의 시작입니다.

회개...

사도행전에서 하루에 3천명과 5천명의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불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영적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첫마디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삼상 7:6)” 우리의 악한 죄악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모하고 다시한번 경험하고 싶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시 이러한 회개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기폭제가 되었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 전에 원주에서 사역하던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 선교사가 조선의 교회와 성도를 내려다 보며 은근히 무시했던 그의 교만을 진심으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시작으로 당시 선교사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것 입니다! 어쩌면 튀르키예의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도 그 땅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들의 진정한 회개로 시작될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부흥의 주체이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2025 CP 가족수양회 스케치

이하영 간사 (SWM Korea 선교회)

2025년 1월 겨울, 우리는 튀르키예의 아름다운 해변 도시 쿠사다시에서 만났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Revival (부흥)이었는데, 새해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안고 가족 수양회로 향했습니다.

작년의 수양회를 다들 좋아했기에, 원래는 2년에 한번 운영하는 수양회를 두 해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얼굴들을 만나는 것은 저를 기대감에 부풀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심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프지만 수양회 참석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있어, 나였다면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즈미르의 쿠사다시에는 항구가 있고, 그때문에 어떤 난민

유닛들은 이곳을 목적지로 이동하는 일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양회를 섬기려던 분들 중에는 평소에 튀르키예와 특별한 왕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입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수많은 사역자 유닛들이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해 튀르키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들은 추방되어야만 했으니까요.

나중에 미카엘 목사님께 지진 구호 사역을 돕던 알리(본래 아제르바이잔 사람)가 튀르키예인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에 원래 추방될 예정이었으나 혼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추방은 정말 잔인한 과정입니다. 만일 가족과 집과 물건이 있더라도 돌아와 가져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수련회의 첫날은 참가자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장거리 여행의 피로를 풀고 낯선 곳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곳에 감도는 약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 난민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일도 어떤 이들에게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후에는 언어권별 모임과, 특히 레이크뷰 언약교회, ANC온누리교회, 그리고 시애틀 형제교회의 부스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며 방을 꾸미고, 집회가 진행되는 행사장에 과자와 소품들을 놓아주시며 정성껏 준비해 주시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SWM의 모든 사역이 교회들의 즐거운 봉사로 이뤄진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부스 사역엔 네일 아트와, 풍선과, 헤어, 마사지, 한방사역, 의료 상담과 데이빗 박 사역자님이 준비해주신 가족사진 촬영까지 정말이지 다채로웠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나누는 데 있어 현지인들과의 소통에서 언어 장벽이 있었는데, 특별히 영어와 터키어를 모두 잘 해서 연결다리가 되어준 M센터의 사역자님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CP들의 활약을 저는 이번에 눈여겨 보게 된 것 같습니다. SWM이 지난 이십 년간 본 튀르키예 땅에서 교회의 부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HWM 3기 훈련을 받은 나오미 자매가 수양회를 섬기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으로 합류해 주기도 했습니다. 첫 날 부스 사역을 마치고 카이로스 대학과 함께 하는 BTS 신학교의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사모를 차려 입고 긴 테이블에 둘러 앉은 졸업생 분들의 모습을 보자니 튀르키예 땅



에 말씀으로 어떤 불꽃이 지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드린 저녁 예배는 모두 특별했지만, 유독 하나만큼은 세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로 How Great Is Our God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저 자신의 미숙한 준비가 부끄럽기도 하고, 행사장에 많은 카메라가 있어 제 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씨름하며 집중을 잃고 있던 때였는데, 그 순간 각자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마치 여러 색깔의 실들이 한데 엮여 하나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듯해서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매일 아침 경건회에서 나누어 주셨던 말씀 중에, 이곳에 모인 난민 사역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고 또 사역을 하며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모두 각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애환

은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절절하게 느껴지지만, 나라는 개인은 너무 연약하고 작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도무지 뾰족한 해결책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와 돌이켜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이었던 것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목적지에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정 사흘차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이 흰 대리석으로 덮인, 아주 커다란 고대 도시의 유적이었습니다.

그곳을 걷다가 문득 반가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어라?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건 꼭 원형 케이크를 8등분한 것 같이 생긴, SWM의 로고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거리의 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피터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Fish물고기, 또는 ICHTHUS 라고 부르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그 안



에는, 이십년 전에 이 예배소에 모인 기도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심겨져 있었지요. 저는 어떤 능숙한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보다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반갑고 기뻐합니다.

다시 이곳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던가요, 그 불을 여전히 품고 기도해 오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마지막 날 모두 흠어지기 전, 뜨거운 포옹들을 나누고 AGS가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어렵고 어두운 때가 오고, 세상이 우리에게서 닫히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갑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더 놀라운 동행을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21 Ocak 2025 / İzmir, Türkiye
 Mezuniyet Töreni



BTS 졸업과 새출발

Bible and Theological Studies(이하 BTS) 1기 졸업식이 지난 1월 21일 튀르키예 쿠샤다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BTS는 단순한 학위 프로그램이 아닌 건전한 신학에 토대를 둔 목회 교육 훈련 과정으로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 개척 사역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목회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목사 안수 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졸업생은 모두 12명으로 석사과정 3명, 전문학사 2명, 성경신학 과정 7명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이란, 남아공 출신이며 튀르키예 여러 지역에서 교회 개척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한국 출신입니다.

닥터 레인 총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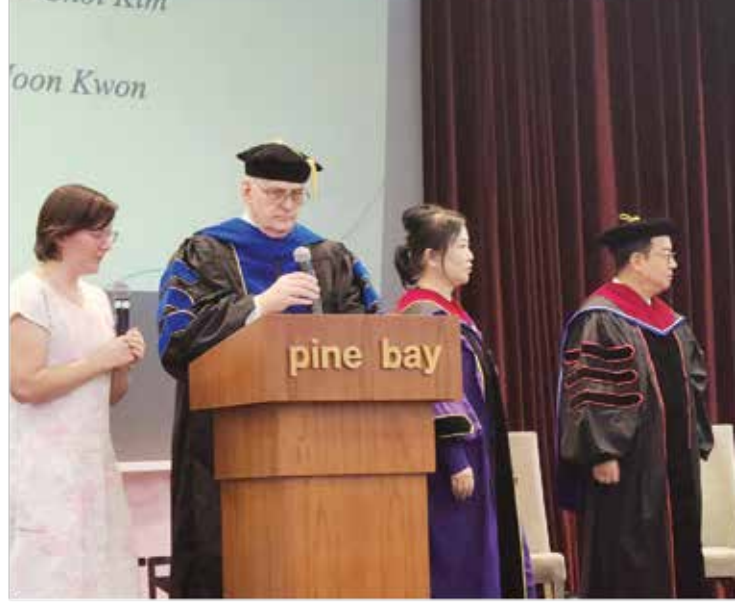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으로는 성경 연구와 기독교 기본 신학과 실질적인 목회 방법 등이 있으며 성경연구 과정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말씀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견고한 기초 교육과 핵심적인 기독교 신학에 따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떤 말씀이 뒷받침되는지, 목양 방법과 교제, 설교 등 실질적인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의 목회 활동에서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레이스 부총장 인터뷰

우리의 교수들은 열정이 있으며 한 톨을 마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이 무엇이고,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과정 준비를 통해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훌륭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 그리고 선교 사역의 축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학생 인터뷰 (엠레 소약)

나에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학생들에게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교회 사역이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지 나눌 때 저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BTS 제 2기 과정은 2025년 6월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학생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이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2기 과정에 지원하여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ğişlayıp ülkelerini sağlığa kavuşturacağız.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추고 기도 하여 내 얼굴을 향하여 배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들의 땅을 고칠지라"



CP가족 수양회

부흥을 주소서!

강민수 목사(레이크뷰언약교회 담임, SWM USA 이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5년 튀르키예 CP 수련회의 첫날, 부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과연 무엇인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지는 것, 기도가 뜨거운 눈물로 쏟아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J.I. Packer는 부흥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 안에서 산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리스도인이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은 참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부흥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1904년 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스 부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서 영국에 대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부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성령님의 능력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역대하 7:14).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 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 구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 하시고, 부흥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간절히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 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즉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

(이사야 43:1-7)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 SWM USA 실행이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눌러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을 잃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사 43:1,4)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힘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실 영광을 고백하며, “물은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합 2:14).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계 7:9-10).

우리 또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물 속에 빠질 것 같고, 불 속을 걸어갈 것 같은 정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며, 결코 불에 타서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증인의 삶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이 한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꿈을 가지고 주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비전은 결국 30,000명이 모인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희망의 물꼬를 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헌신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도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
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CP가족 수양회

girdikten sonra öğrencileri özel
uhu neden kovamadı? diye
u tür ruhlar ancak
rdi.



부흥의 필요

(마가복음 9:28-29)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SWM USA 부이사장)

pine bay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영혼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이 역사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며, 선교의 어려움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가 “백인들의 종교”로 불리며, 이슬람권 선교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든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성과, 열리려 하지 않는 마음의 문, 닫힌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9장에는 부흥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 9:29).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종종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슬람권 선교와 같은 어려운 사역, 영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해결은 우리의 방법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열리지 않는 영혼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흥의 열쇠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민



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일으킬 부흥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로 부흥의 문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하는 책임

함께해서 더욱 빛났던 시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늘 외즈튀르크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지원해 주셨는지 목격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임을 깊이 느끼게 해 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가 얼마나 독특하고 세심함과 질서 있게 운영되었는지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서 각자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열망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간과하지 않고 모든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이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ESV)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저는 이 구절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

고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함께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쇠는 쇠를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17, ESV)라는 말씀이 여기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져주었고, 형제자매로서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한국 형제자매들의 사역에서의 질서 정연함과 꼼꼼함을 보면서 또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식탁에 놓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그들의 세심함과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는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40, ESV) 이 구절은 제가 목격한 질서와 규율의식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행사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우리를 지원해 주신 분들, 섬겨 주신 분들, 조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계획하신 분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기능할 때, 각 지체가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영광을 받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4, ESV)

그러므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통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정신, 이 하나됨, 이 헌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시편 133:1, ESV)



중보기도와 섬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선교

이재우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형제교회 이재우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CP 가족 수양회에 오면서 사실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든 생각은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마치 천국잔치를 보고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현지 사역자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이 처한 환경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의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큰 은혜와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해 주실 때 우리도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



고 의지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수양회처럼 우리가 정말 현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잘 양육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이 분들과 현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교회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선교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3박 4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이런 수양회에 참여해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P가족 수양회



중보기도와 섬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선교

조명희(레익뷰언약교회)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선교였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행 1: 14)

이번 선교는 지난번과 달리 처음으로 SWM 난민교회 CP들을 초청하고 호스트하는 특별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7개교회를 돌아보는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기 12일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매일 밤 잠으로 선교팀과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수많은 변수들이 생김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첫날 관계의 문제로 나의 마음에 낙심을 심었습니다. 거기다 박목사님이 공항에서 조사에 걸림으로 목사님을 뒤로한 채 호텔로 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밤에 깨워 주셨고 한시간이상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에 좌절과 낙심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 메디컬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자매와 건강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후에 그 자매의 치유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빠진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충만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자매의 남편이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여 그 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바로 튀르키예 교회 리더 사헌의 아내였습니다. 부족한 저희 팀을 사용하사 귀한 주의 종들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강민수 목사님의 개회 메시지 후에 기도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튀르키예 땅과 이곳에 거주하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튀르키예의 모든 음란, 살인, 폭력, 거짓,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수양회기간 매일 밤 하나님은 저를 깨우셨고 수양회를 위한 중보를 시키셨습니다. 매일 저녁 7-8시 까지 중보기도팀과 함께 통성으로 수양회를 위해 그리고 튀르키예 땅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과정을 통하여 개인기도를 뛰어넘어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합심하여 중보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매주, 금요 미스바 기도모임에서 구역과 선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팀원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가르쳐준 선교였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 45)

공식적인 의료선교는 하지 못했지만 수양회 기간 동안에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김호성 총무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그분들을 왕진하고 가져간 약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었습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 받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남의 필요를 걱정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올해는 구역장과 해외 선교팀장이라는 두가지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직장의 직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요, 엄마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말주변도 없지만 연약한자 지혜가 부족한자들을 택하여 부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능력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기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틈틈이 도왔고 특히 일대일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Theodoros Ege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조용한 남자 아이였습니다. 중보기도시간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기도하였는데 바로 그 많은 아이들 중 한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그리스 튀르키예계의 6살 소년입니다. 부활절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같이 색을 칠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인상깊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매일 Theodorose Ege를 위해 매일 중보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모하게 된 선교였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눅 4:1)

셋째 날 밤에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이신 권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앞으로 나아가 다시한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 말씀 눅 4:1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때와 시간과 방법은 모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시 한번 19살에 드렸던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지 알기에 감히 제가 무엇을 하겠다 말겠다 라는 말은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기도한 것은 저도 늘 성령충만을 받아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짧어서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연약하여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겸손히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이 이끄는 가장 큰 축복 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년에 한 두번씩이 아닌 주님께서 늘 편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늘 편히 입고 싶으신 그런 옷이 되고 싶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그리고 다녀오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화 찬양에서 했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날 일으켜 세워 주시며 내가 목마를 때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퀴타히야 소식

엠레 사역자

사역 소식

시장과의 만남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진행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우리에게 제공할 건물이 없고 건물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기독교 묘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도시에서 인정받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엠레와 다른 지도자들은 시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전처럼 활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서 임대하거나 구매할 적절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에 대한 자금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 기간과 학기 휴가가 시작되어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에서 교회에 계속 출석하지만, 일부는 고향에 지역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신약성경을 요청하고 만나기를 요청한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엠레와 교회의 몇몇 형제들은 아피온과 퀴타히야에서 그들을 접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듣고, 그들이 구하기 시작할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피온의 그룹은 몇몇 학생들이 다른 도시의 대학에 다니게 되어 규모가 작아졌지만, 남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E』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1년이 조금 넘게 우리 교회에 출석했지만, 최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9월에 대학에 입학했고, 그 도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는 메시지에 답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우울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는 현재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퀴타히야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가족, 특히 그의 정신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다시 교회에 참여하며, 올해 세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소식

1월의 대부분 동안 우리 중 적어도 한 명은 아팠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열과 오한으로 번갈아 가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난 주말 아렌은 심한 병에 걸려 탈수 증세로 하룻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적어도 당분간이라도!

우리는 엠레의 석사 학위 졸업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쌍둥이가 6주 되었을 때 시작되었고, 지난 몇 년간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엠레는 선생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폰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엠레가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기회가 생길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이들은 졸업식과 컨퍼런스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다른 믿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며, 그들을 섬기는 팀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해변에 가서 큰 바위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즐겼습니다!

기도 제목

1. 교회 건물 상황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임대할지 구매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시에서 눈에 띄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E'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가 지금 있는 어두운 곳에서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3. 시장과의 관계가 진전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와의 관계가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4. 엠레의 석사 프로그램과 지난 3년간 그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배우고 교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SWM 사역일정

SWM 선교회 사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HWM 청년선교사 (Holy Wave Makers)

- 신청마감: 8월 30일까지
- 장소: 튀르키예, 그리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스라엘
- 기도제목: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모집되어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꺼이 사용되기를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휴스턴한빛교회 비전트립

- 날짜: 3월31일(월) ~ 4월9일(수)
- 장소: 튀르키예 이스탄불, 계시록 7교회, 갑바도기아, 다소, 안디옥
- 기도제목: 튀르키예 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밟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에게 격려가 되며 앞으로 이슬람권에 펼쳐질 주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B2N을 위한 기도회 시작

- 목적: 2027년 4월에 개최할 B2N 사역을 위해 선교적 마음과 뜻을 모아 이슬람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도록 모여 기도한다.
- 일시: 4월 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순전한교회
- 기도제목 :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져 B2N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2027년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for Blessings to Nations!!

연합기도회

열방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모임.
무슬림권 지역의 복음과 부흥을 위해 함께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지역교회와 차세대가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00
장소: 순전한교회

2101 W Crescent Ave #K Anaheim, CA 92801 | 714.469.2220

SWM USA

후원 안내

단 한번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 한번의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세워질수 있습니다.



Zelle :finance@silkwavemission.com
Memo : BM



Zelle :finance@silkwavemission.com
Memo : PS



Zelle :cpf@silkwavemission.com

● Check으로 보내는 방법

Pay to the order of:
일반헌금 및 교회개척 헌금: **Silk Wave Mission**

Silk Wave Mission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 문의

전화번호: 714-999-8639
일반헌금: **박은경 팀장**(swmacct@swmnet.org)
교회개척헌금: **김기수 팀장**(cpf@swmnet.org)

※ 실크웨이브 선교회는 연방정부에 501(c)(3)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후원자님의 헌금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 및 헌금 영수증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